

## 미 대법관 2명, “동성 결혼 인정 재고해야” 의견서로 제안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원장인 클레런스 토마스(Clarance Thomas)와 사무엘 엘리트 2세(Samuel A. Alito Jr.)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오버거펠 대 호지스(Obergefell v. Hodges)’ 판결을 법원이 다시 생각해 보도록 제안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6일 보도했다.

두 대법관은 신실한 기독교 신앙 때문에 동성 커플에게 혼인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전 켄터키 카운티 서기 킴 데이비스(Kim Davis)의 항소를 법원이 기각한 데에 대한 의견서를 월요일에 발표했다.

독실한 오순절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데이비스는 허가증 발급 거부 이유를 잠시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다.

토머스 대법관은 의견서에서 그녀의 항소에 대해선 부인하면서도, “오버거펠의 결과를 극명하게 상기시켜 준다”면서 “수정헌법1조에 명시적으로 보호되는 종교적 자유 이념보다 새로운 헌법적 권리를 특권으로 선택했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법원은 그들만이



고칠 수 있는 문제를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판결은 2015년 6월 주에서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며, 모든 주가 동성 커플에게 혼인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 결정은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신성한 제도’라는 믿어온 수많은 미국인들의 신념의 자유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새뮤얼 엘리트, 클레런스 토머스, 2016년 사망한 안토닌 스칼리아 등 보수 성향의 대법관 4명은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 의견을 냈다.

토머스 대법관은 2015년에 이 결정이 종교적 자유를 위협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종교적 신념의 일부로 전통적 결혼을 지지하는 미국인들은 이제 “편협한 사람(bigots)”으로 부당하게 취급되고 있다고 언급했

다. 토머스는 “오버거펠 대 호지스 사건에서 법정은 동성결혼에 대한 권리에 대해 수정헌법 14조를 읽었지만, 그 권리는 본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미국이 입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이런 (기독교)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함의를 포함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머스는 “그러나 법원은 그 민주적 절차를 우회했다”면서 “더 나쁜 것은 동성결혼에 대해 진심으로 종교적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고상하고 고결하다’는 사실을 잠시 인정했음에도, (.) 계속해서 법원은 이러한 믿음이 편협한 세계관을 옹호한다고 제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데이비스 킴의 상호와 관련, “법원의 종교에 대한 무신경한 대우의 첫번째 희생자 중 하나일지 모르지만 마지막은 아닐 것”이라며 “오버거펠로 인해 결혼과 관련된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차별금지법의 영향이나 오버거펠과 충돌하지 않고선 사회 참여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머스는 마지막으로 “오버거펠 판결은 ‘종교적 반대를 하는 사람들’을 곤경에 빠뜨렸고, 법원과 정부는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혼이라고 믿는 신자들을 편협한 사람으로 낙인찍음으로써 그들의 종교적 자유를 훨씬 쉽게 무시하도록 만들었다”고 우려했다.

김유진 기자

## 성경 700개 이상 언어로 전권 번역... 57억 명에 혜택

윌클리프성경번역선교회(Wycliffe Bible Translations, 이하 윌클리프)는 최근 성경 전권이 700개 이상의 다른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57억 명이 넘는 인구가 구약과 신약 66권 전권을 자신의 언어로 볼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윌클리프성경번역선교회 소속 번역가인 제임스 폴(James Paul) 이사는 “이 이정표는 성경 번역가들이 전 세계에 걸쳐 엄청난 일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성경이 다른 언어로 번역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언어 그룹에 속한 이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야

기의 전체적인 그림에 온전히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걸음 물러나, 이 700번째 성경의 의미를 깨닫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다. 700개의 언어를 구사하는 57억 명의 인구가 이제 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언어로 된 성경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700번째 번역이 될 수 있었던 성경 번역 3편을 열거했다. 후이철(위사리타리) 성경은 멕시코에서, 웰름웨 성경은 말라위에서, 또 나이지리아 민족이 사용하는 이데 성경은 나이지리아에서 번역이

시작됐다. 윌클리프는 “물리적인 성경을 여러 차례 출시한 것을 비롯해 온라인과 앱을 통해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700번째인지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윌클리프는 “성경 번역이 너무 많이 진행되어 700번째 성경을 정확히 집어낼 수 없다는 사실은 매우 놀랍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수 있다는 비전이 현실이 되는 흥미진진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했다.

미국성서교회(American Bible



조천어 성경을 들고 기뻐하는 데이비드 홍 목사. ©성서공회

Society)도 지난 수십 년 동안 ‘번역 기술의 발전’과 ‘성서 번역기관 간 전례없는 수준의 파트너십’으로 성경 번역이 급증했다며 이 소식을 축하했다.

ABS 로버트 브릭스(Robert

Briggs) CEO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목회 협력자들, 그리고 관대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능케 하는 재정 협력자들에게도 감사한다”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저파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 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CERTIFIED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 월~금 : 8AM~6PM, 토 8AM~4PM \*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323)730-0112, (323)735-3180**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MIS)
- 위치: LOS ANGELES CAMPUS,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교 본교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8642)
- 등록마감일: 유학생 11월 1일, 미국거주자 12월 15일

>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유족을 대표해서 인사하는 신현모 목사 ©기독교일보



고인을 회상하는 차남 신현호 목사 ©기독교일보

# “일 평생 하나님 나라와 교회 위해 헌신했던 목회자였다”

## 故 신석우 목사 천국환송예배 열려

지난 1일 향년 82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고 신석우 목사의 천국 환송예배가 7일 오후 2시 한국장사 파크에서 거행됐다.

고 신석우 목사는 신학생 시절 김포성결교회를 개척하고 폐쇄직전까지 갔던 김단성결교회(현 김단우리교회)에 자원해 새생전을 건축하고 등록교인 500여명으로 성장시켰다.

이후 어려움에 처했던 인천 북성성결교회에 자원해서 부임해 8년간 교회 성장과 부흥을 주도했다. 2000년 도미한 신 목사는 양로병원과 노인들을 위한 섬김 사역에 매진했다.

김기동 목사(총만교회 담임)의 인도로 드러진 이날 천국환송예배는 윤석형 목사(산샘교회 담임)의 기도 후 이정근 목사(유니온교회 원

로)가 계시록 14장13절을 본문으로 “축복스런 이민”이란 설교했다.

이 목사는 “고 신석우 목사님은 이민자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늘나라로 이민가신 것이다. 모든 성도는 믿음이란 여권과 은혜라는 비자로 하나님나라로 이민을 가는 이민자의 삶이다”라며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안에서 생을 마감한 것처럼 복된 삶을 엮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 신석우 목사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에 이민시키

기 위해 힘쓰셨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계승하자”고 권면했다.

조사를 전한 고인의 차남 신현호 목사(새하늘 교회 담임)는 “아버님은 집안에 첫 믿음의 조상이었다. 믿음 가진 후 집안 형제의 핍박에도 가족 전체를 전도하고 6명의 목회자를 배출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셨던 분이셨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에 삶으로 모범을 보이셨던 분이셨다”고 말했다. 이어 손자 손녀들의 조가와 함께 평소 할 아버지에게 받은 사랑을 편지에 담

아내 고인과 함께 했던 아름다운 추억들을 회상했다.

유족을 대표해서 인사한 신현모 목사는 “한 평생 신실한 목회자로 자녀들에게 롤 모델이 되셨다. 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최선을 다하신 아버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가족이 되겠다”고 인사했다.

이날 예배는 신원철 목사(성광회 회장)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인규 기자

# 미주 한인교회 온라인 찬양경연대회 7개 팀 본선 진출

## KCMUSA 주최, 총 상금 2만 달러

미주지역 기독교 포털을 운영하는 재미한인기독교재단(이하 KCMUSA/ 이사장 박희민 목사)이 창립 18주년을 맞아 미주 한인교회를 대상으로 주최한 온라인 찬양경연대회에 미 서부와 동부, 하와이, 브라질 등지에서 7개 교회가 참가한다. 총 상금 2만 달러.

당초 기대보다 참가 교회 수가 적고 합창 형식을 취할 수 없어 대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집행부의 거듭된 논의 끝에 찬양대원들이 각자 집에서 연습 녹화한 영상을 하나로 편집한 버추어 콰이어(Virtual Choir) 형식을 통해 온라인 찬양제로 진행하기로 됐다.

온라인 찬양제 집행위원장 립학준 목사는 한인 교회 참여율이 저조한 원인으로 실내 예배 중단, 예배 중 찬양 금지 등 코로나 사태로 대

회가 미주 한인 기독교계에서는 처음으로 버추어 콰이어 형식으로 이뤄지는 점과 한인 교회 내 디지털 기반 부재와 영상 전문가 부족으로 인한 영상 제작 한계를 꼽았다.

립 목사는 “미주 한인 교회 목회자들이 영상예배 인도, 디지털을 통한 성도들의 영상 관리와 교육으로 너무나 분주해 찬양대회 참가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았다”며 “참가 팀 숫자가 적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한 찬양은 그야말로 감동이었다”고 밝혔다.

박희민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예배당을 가득 채우던 찬송의 화음이 사라졌다. 그러나 디지털 세계에서 찬양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KCMUSA가 주축이 되어 시대의 흐름에 걸맞은 온라인 찬양제를 준비했다”며 “코로나로 힘들어



KCMUSA 2020 온라인 찬양제에 참가한 이틀란타 제일장로교회 찬양팀 영상

하는 한인사회와 이민교회에 활력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대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온라인 찬양경연대회에는 갈보리교회(담임 왕태건 목사),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담임 서삼정 목사), 새생명비전교회(담임 강준

민 목사), 브라질 신암교회(담임 문정욱 목사), 새한장로교회(담임 송상철 목사), 하와이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담임 한의준 목사), 시라큐스한인교회(담임 지용주 목사)등이 예선을 그대로 통과해 본선에 진출했으며 10월 30일 본선 영상 접수마

감, 11월 30일 결선 영상 접수 마감 등의 일정을 거쳐 12월 10일 최종 당선 팀이 발표 될 예정이다.

KCMUSA는 온라인 찬양제 본선 참가 팀의 찬양영상을 웹 사이트 KCMUSA.org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김동욱 기자

**캘리포니아주 의료보험 의무화 및 미가입 벌금에 대비하세요!**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Since 1996 Operated by Logos Missions, Inc.

\*미국 내 의사, 병원 제한 없고,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원

문의: 이사라 213.318.0020 | www.cmmlogos.org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 비영리단체등록
-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 특허
-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림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2021년도 봄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 중**

**Grace Mission University**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 견실한 인력  
- 강한 군사  
- 세계 선교

찾아오시는 길  
W Commonwealth Ave  
S Rockwings Rd  
W Valencia Dr

**Grace Mission University**

ats, ABHE, TRACS, CHEA

미국의 뛰어난 복음주의 신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b>학위과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차문화 철학박사 (PhD in ICS)</li> <li>선교학 박사 (D.Miss)</li> <li>목회학 석사 (M.Div)</li> <li>기독교 교육학 석사 (MA CE)</li> <li>교차문화(선교학)석사 (MA ICS)</li> <li>기독교 상담학 석사 (MA CC)</li> <li>신학사 (BA)</li> <li>기독교 상담학 학사 (BA CC)</li> </ul>
<b>특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인신학교 최대규모의 도서관</li> <li>저렴한 교육비, 다양한 학교 장학금 수여</li> <li>English Track, LA Extension (3020 Wilshire BL)</li> <li>유학생 I-20 발급</li> <li>연방정부 학비보조 (Federal Student Aid, Pell Grant) 및 캘리포니아 학비보조 (Cal Grant)</li> <li>온라인 통신으로 전과정 제공 (석사과정까지 100% 온라인 수강 졸업 가능, 박사과정 50%)</li> <li>HD 시스템을 통한 고화질 온라인 강의</li> <li>한인신학교 최초 온라인 “Live” 강의</li> </ul>

**이벤트 1 11월 Early Bird 장학금**

특별히 11월 한달동안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입학원서 접수와 입학허가를 받으시면 \$500불의 Early Bird 장학금 지급 (12월 입학허가시 \$300불)

**이벤트 2 화상입학설명회**

**일시 및 시간 : 10월 29일(목) 오후 4시**  
학교 홈페이지의 화상 입학 설명회 링크 (gm.edu/online)  
Zoom Interview : 726-399-1642 / pw: 2020

- \* 자세한 학교 소개, 학위과정, 입학절차, 장학금소개, 통신수업 등 안내
- \*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입학금 면제 혜택
- \* 학교 홈페이지 LiveChat 및 Zoom 으로 실시간 입학상담가능

**입학 문의 : 714-525-0088(대표) admissions@gm.edu**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www.gm.edu

# 미드웨스턴, 평신도 사역자 육성 위한 석사과정 개설

## 상황화된 사역학 석사과정 신설해 2021년 봄학기부터 운영

“교회를 위하여”란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을 추구해 온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이 평신도 역량 강화를 위해 2021년 봄학기부터 사역학석사과정(Master of Art in Ministry Service, 이하 MAMS)을 개설한다. 100% 한국어로 진행되는 사역학 석사과정은 총 33학점(13과목)·3학기 구성되며, 졸업까지 1년내지 1년 반이 소요된다.

‘평신도 사역자’라는 단어는 이미 한국이나 한인교회에 익숙해졌고, 교회가 당연히 추구하고 힘써야 할 목회철학의 한 분야로 여겨진다. 그러나 막상 평신도 지도자를 위한 신학교육과정은 부족한 현실이다.

이 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 교회의 목양사역에 동역할 평신도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다. 각 지역교회가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육성하는 전략적이고 상황화 된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교회가 갖고 있는 고유한 사역영역과 특징이 최대한 반영된 커리큘럼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또 이수자는 해당 지역 교회에 교회의 상황에 맞춰 일부

과목을 교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교수선정 및 과목개설 등의 모든 과정은 미드웨스턴 한국부에서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본교의 철저한 관리와 지원도 함께 이루어 지기에 학업의 수준이나 교수의 전문성은 본교와 비슷한 수준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한국부의 박성진 학장은 “한국과 한인교회는 평신도 신학을 지난 40년 넘게 말해 왔지만 소그룹 인도 정도를 평신도에게 맡기는 수준에 그쳐왔던 것이 현실이며, 이제는 교회 내에 카리스마적 리더십에 의존하는 교권주의적 리더십보다 수평지향적 리더십을 지향할 때가 왔다”면서 “이는 평신도를 목회의 동역자로 여길 때가 왔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각 교회가 다르듯 평신도가 배우는 내용 역시 이에 맞추어 달라야 하는 상황적 적용이 이번 사역학 석사과정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의 목회학 석사과정(M.Div.)이 교회나 선교사역을 위한 목회자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과정이라면, 사역학 석사(MAMS)는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는 평신도들이 본인 이 섬기는 지역교회가 필요로 하는



미주리주 캔사스시에 있는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의 전경.

부분을 섬길 수 있도록 특성화, 상황화된 사역을 익히는 동시에, 기본적인 신학의 소양도 함께 배우는 과정이다.

전공과목으로는 신학개론 I & II, 변증학입문, 기독교윤리학, 구약개론, 신약개론, 교회내의 제자도 훈련실습, 아웃리치 전략과 방법 실습, 연령별 그룹사역 실습, 결혼과 가정 상담, 창의적 글쓰기, 창의적 발표하기, 논리적 토론하기 등이 있다.

본 과정을 마치고,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의 기독교교

육학석사(MACE) 또는 신학연구석사(MTS) 과정으로 진학할 경우 본 과정에서 이수한 수강학점 모두를 인정받을 수 있다.

남침례회(SBC) 산하 6대 신학대학원 중 하나인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는 성경사역학 철학박사(Ph.D.) 과정을 비롯한 다양한 박사과정(목회학, 교육목회학, 교육학)과 석사과정에 65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며, 다변하는 사회 속에 있는 교회와 사역현장이 필요로 하는 목회자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데 온 힘을 쏟

고 있다.

현재 북미주류신학교의 학위를 인가하는 ATS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와 미국 내 종합대학교의 학위를 인가하는 최고 인가기관인 HLC (Higher Learning Commission)에 정식 인가 돼 있다.

미드웨스턴 입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웹사이트(www.mbts.edu/ks)나 직접 문의(이메일: ks@mbts.edu; Tel.: 816-414-375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동욱 기자

# 남침례회 한인총회 남가주 지방회 신임회장으로 김영하 목사 선출

##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교회 돌보겠다”



남침례회 한인 총회 남가주 지방회 신임회장 김영하 목사

회는 지난 5일 살롬선교침례교회(담임 김영하 목사)에서 40차 연차 총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으로 김영하 목사를 선출했다.

또 부회장에 최국현 목사(은혜와 진리침례교회), 총무에 민승배 목사(Faith Chapel조은교회), 서기에 장재영 목사(West LA 이마고데이 교회), 회계에 피터 최 목사(뉴라이프 뉴비전교회), 감사에 김대준(LA비전교회) 목사, 변희왕 목사(새소망교회)를 선출했

다. 신임회장 김영하 목사는 “2015년에 34대 회장으로 지방회를 섬겼는데 금년에 다시 선출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돌보는 일과 오는 2022년에 남가주에서 열리게 되는 한인총회를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1부 경건예배는 직전 지방회장인 박영호 목사가 “요한의 자기 정

체성”(요 3장 26-30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 목사는 “요한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이었다”며 “우리도 목회사역에서 예수님만을 나타내자”고 설교했다.

총회는 안전처리를 통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위해 50명 미만의 출석교회는 지방회비를 1년간 자율적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또 규약수정을 위한 위원 선출은 임원단에 위임하기로 하고, 추

후에 임원들이 규약수정위원들을 선출하면 회장이 수정위원장이 되어 위원들과 함께 규약을 수정하기로 했다.

한편 총회는 마스크 착용과 체온 측정, 안전을 위해 소독 등 방역과 거리 두기를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이날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대의원들을 위해 지방회에서는 온라인으로 총회 실황을 중계했다.

김동욱 기자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빛은 그로 의연하지 않았다

Righteous Outlaw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책의 추천자들: 오대현목사(예수전도단), 주선애교수(장신대 영예교수), 이영희교수(예수전도단), 송정영목사(복음선언대 공동대표), 권준목사(유일리이주대표), 신정민목사(복음선언대), 유관치목사(동일로대표), 김인식목사(KCC공동대표)

\* 영의 책은 아메 연혁자로 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20/권당 + \$5 우송료

박상원 목사 책의 관리자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과 수록된 빛은 그로 의연하지 않았다’는 북한 간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하신도들의 순교종언으로 지역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과, 우리에겐 복음통일과 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이다.

\* 책크라우드: GBM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기독교복음선교회 GBM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m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이벤트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안녕하세요? 18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돌려받으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 2020 다민족연합기도회(영상기도회)

Multi-Ethnic Virtual Prayer Gathering

## COVID 종식, 11월의 선거, 부흥과 회복

일시 : 2020년 10월 16일(금) 밤 7:30~9:30  
 현장 기도회 : 은혜한인교회  
 중계 : 미주복음방송, CTS America, 은혜한인교회GKC TV,  
 YouTube : 2020 다민족연합기도회

지금부터 비상하게 기도할 때입니다!  
 Covid-19 극복을 위하여!  
 11월에 있는 각 선거를 위하여!  
 미국 건국정신인 청교도신앙 회복을 위하여!

대표대회장 : 한기홍 목사  
 준비위원장 : 강순영 목사(310-995-3936)  
 공동준비위원장 : 이성우 목사(213-675-6493)  
 사무총장 : 강태광 목사(323-578-7933)



✉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78**

### “멕시코 민족 장로교 신학대학 교정에 서서(2)”

지난 22년을 개척하고 지금까지 이끌어 왔던 임원석 선교사 부부가 내게 가장 중요하게 이룬 말이 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들어온 신학생 한 명 한 명이 멕시코 장로교회의 우수한 미래 지도자가 될 인재라는 것이다. 그들을 훈련하는 우리 선교사들이나 교수 감사들도 아직은 모른다 했다. 저들이 이곳에서 훈련받고 목사 안수를 받아 그들의 사역지로 가서 어느 정도의 교회 지도자들이 될는지.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미국의 어느 신학교가 학생들에게 성경 완독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어쩌면 전 세계 신학교의 경건 훈련의 모범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한다.

필자는 지난 십여 년간 이슬람권 선교에 많은 관심을 갖고 매년 단기선교로 중동의 나라들을 방문해왔다. 이슬람권에서는 아직 교회의 간판이나 십자가를 공개적으로 내걸지 못하는 나라들이 많다. 하나님 은혜로 10여 년 사이에 이슬람권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여전히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순교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터키나 이집트, 파키스탄, 인도, 이란, 조지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나라에서는 기독교회의 증가가 놀랄 정도로 부흥하면서 보여지는 교회당도 많아지고 있다.

이제 이슬람권의 선교 부흥이 일어나면 그곳의 선교사들이 배워야 할 선교 방향이 멕시코를 비롯하여 남미 선교지에 있다고 본다. 선교 인력과 자원이 너무 중복되어 있거나 물질 중심의 선교였다면 선교적 과오들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겠으나, 그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모범적 선교 신학교 사역이나 교회 개척 사역 등의 선교 전략은 남미 선교사들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다. 그중에 우리 신학교가 멀지 않은 미래에 큰 도움을 끼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나님께서 필자를 이슬람권과 아프리카, 중국 등지의 선교지를 통해 다양하게 훈련시키신 뜻을 이번 멕시코 신학교 파송을 통해 깨달아 가고 있다. 우리 신학교에서도 세계선교를 담당할 선교사들을 배출해 낼 선교비전을 주신 것이다. 오랜 선교 대상국이었던 멕시코는 장로교단의 변화를 통해 앞으로 선교 주도국으로의 꿈을 갖는다. 이 우수한 좋은 선교 인력이 배출되어 이슬람권은 물론 열방 전역으로 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분부하신 지상 대명령을 수행할 날을 필자는 믿음으로 기대한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지금까지 멕시코 최남단 지역인 치아파스 지역에서 올라왔다. 치아파스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남한보다 넓은 곳이다. 현재 멕시코 전체에 민족 장로교단 산하의 지교회 3500개가 넘는다. 미국 장로교단의 영향을 받아 지역 노회들이 71개가 있다. 우리 신학대학 출신의 사역자들이 이미 훌륭히 목회하여 멕시코 전체에서 가장 많은 성도들을 갖고 있는 교회의 담임도 있다. 한 목회자가 6 교회를 담임하는 사역자도 있다. 현 총회 임원과 노회장들도 여러 명 된다. 현재 160여 명이 목사 안수를 받았다. 아직 멕시코는 여성 안수를 주지 않는다. 그러나 우수한 여성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그녀들은 각기 교회에서 성경공부를 인도하던지, 주일학교를 담당하던지, 예전 한국교회의 여전도사들이 감당했던 심방과 상담 등을 맡아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역을 맡고 있다.

대부분이 교회에서 찬양과 연주 등을 담당하며 현지 어린이들에게 피아노와 기타 연주, 악보 보기 등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들을 갖추고 있다. 그렇다. 우리 신학교에서는 신학 과목들은 물론 교회음악과 실례를 다 가르친다. 치아파스 지역의 각 노회에서 추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경시험과 선교사 인터뷰를 통해 입학 자격을 얻게 되므로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이미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오는 것이다. 그런 그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그날부터 시작하는 것이 성경일독 프로그램이다. 각기 하루에 시간을 정해 한 시간 이상씩 성경을 읽는다. 한 학기 2독을 완수하는 학생들이 많다. 자발적으로 성경을 읽는 분위기가 캠퍼스 전체에 퍼져 있다. 필자는

강태광목사의 인문학 강의 4



### 역사속의 아레오바고(행17장)

지난 호에 서구문명은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조화와 충돌로 빚어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바울이 아테네 아레오바고(Areopagus, 이하 아레오파고스)에서 아테네 시민들과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장면을 소개했습니다. 바울의 아레오파고스 설교는 설교학, 선교학 그리고 문화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아레오파고스가 문헌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신화입니다. 전쟁의 신 아레스가 자기 딸을 납치하려는 포세이돈의 아들을 죽이자 포세이돈이 아레스를 고발합니다. 이에 올림포스의 12신들이 표결하여 아레스의 무죄를 선고합니다. 딸을 지키려했던 아버지를 정당한 위로 인정했습니다. 이후 이 재판이 열렸던 언덕을 아레오파고스(아레스의 언덕)로 불렀습니다.

아레오파고스는 민주주의의 요람으로 발전합니다. 아테네 귀족들이 아레오파고스 언덕에 모여 의사를 결정했는데 이 모임이 아레오파고스회의입니다. 또 아레오파고스는 아테네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서 깊은 법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살인이나 살인할 의도로 입힌 상해, 방화, 독살 등과 관련된 재판이 이루어졌다 고합니다. 이 법정은 열린 법정이었습니다.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시시비비를 가릴 일을 이곳 아레오파고스에 제소했고, 그를 위한 재판을 열었습니다. 검사나 변호사 없이 당사자들이 제소하고 변증한 후 배심원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원전 399년 5월 칠순의 소크라테스가 아레오파고스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는 “국가의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국가의 신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요 다수결의 폐해 사례로 알려지는 이 재판에서 소크라테스는 사형언도를 받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억울한 언도를 받지만 탈출이나 거부행동 없이 “악법도 법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며 독배를 마십니다.

다. 역사상 가장 훌륭한 철학자로 인정받는 소크라테스가 주로 활동했던 무대가 아레오파고스였고, 이 아레오파고스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서 유명한 가난하고 못생긴 사람이었지만 그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그의 탁월한 지혜와 설득력 때문입니다. 나중에 유명한 장군으로 성장한 소크라테스의 제자 알키비아데스는 소크라테스의 말을 듣고 있으면 “심장이 격렬하게 뛰고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의 노예가 되어 버린 것 같았다.”고 했고, 아테네에서 추방된 한 젊은이는 소크라테스 가르침이 그리워 여자로 변장해 귀국했습니다. 그는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아테네를 떠난 지 400여년이 지난 어느 날 바울이 아테네의 아레오파고스에 섭니다. 아테네를 방문한 바울은 소크라테스와 똑 같이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합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헬라사람들(God-Fearing Greeks)과 변론합니다. 시내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독특한 복음이 스토아와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에게 전해지자 그들에 의해 바울은 아레오파고스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1644년 11월 아레오파고스가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습니다. 존 밀턴이 ‘아레오파지티카(Areopagitica)’라는 책을 발간했기 때문입니다. 아레오파지티카는 아레오파고스에서 차용한 이름입니다. 밀턴은 이 책에서 거짓과 진리가 경쟁한다면 반드시 진리가 승리한다고 말합니다. 밀턴은 표현의 자

유를 강조합니다. 밀턴은 표현의 자유가 어떤 자유나 인권보다 중요한 천부적 인권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책은 표현의 자유를 논하는 고전입니다.

소크라테스, 바울 그리고 밀턴을 관통하는 아레오파고스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사건은 사도바울의 변증(설교)입니다. 바울의 헤브라이즘은 헬레니즘에 대가들인 아테네 철학자들을 능가했습니다. 바울은 예리한 관찰력으로 아테네 시민들의 종교성을 관찰하고, 참종교성을 갖도록 도전합니다.

바울은 이어서(사도행전17:28에서) 아테네 사람들이 애송하는 헬라 시들을 암송하면서 아테네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그는 먼저 아테네의 자람 에피메니데(Epimenides)의 시구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산다(In him we live and move and have our being)”를 인용하여 섭리자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는 또 헬라 시인 아라투스(Aratus)의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We are his offspring)”는 시구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변증합니다.

풍부한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바울은 아레오파고스에 꼭 맞는 설교를 합니다. 아마 아테네 철학자들과 아테네 시민들은 바울의 설교를 들으며 혀를 내 둘렀을 것입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 아레오파고스 관원 디오누시오 등이 회심합니다. 역사에 길이 빛날 아레오파고스의 바울 설교는 학문, 경험, 열정 그리고 분명한 복음으로 빛어낸 명작입니다.

아레오파고스는 두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첫째 전통은 공정, 인권, 그리고 자유로 세워진 민주 전통입니다. 요즘 표현의 자유 침해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을 보면서 밀턴의 아레오파지티카와 아레오파고스의 정신을 다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전통은 열정, 관용 그리고 배려로 접근한 복음의 전통입니다. 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직면한 선교의 현장에서 선교사 바울이 보여준 열정, 준비 그리고 인문학적 관용을 다시 마음에 담습니다.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정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중희,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민규 이 사 장 : 존 킴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LA 노숙자지원,  
 아이티 쓰레기마을 아동지원,  
 수리남 참전용사 자녀돕기에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일부를 나누면  
 한 아이 인생의 전부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질병과 가난에 허덕이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작은 나눔  
 (30불, 50불)으로  
 희망을 나누는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사랑과 성금!  
 행복의 비밀입니다!  
 World share USA가 LA에서  
 특별한 사랑과 성금을 시작합니다.  
 월드쉐어는 국제 구호 NGO 단체입니다.  
 월드쉐어는 UN과 함께합니다.  
 월드쉐어는 최첨단 기지에서 뛰어드는 코어와  
 월드 빈곤 해결을 사명으로 후원합니다.

World Share USA

3123 W. 8th St. #206 LA, CA 90005 후원 문의 :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월간 지저스아미 2020년 10월호 발간사]

# '낙태와의 전쟁' 에 우리 생명을 기꺼이 바칠 수 있습니까?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눅 1:15).”

1. 누가 태아는 생명이 아니고, 영혼이 없다고 말하는가?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삿 16:17).”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 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시 71:6).”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눅 1:15).”

삼손은 이미 모태에서 나실인으로 성별되었고, 시편 기자는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의지하였으며, 세례 요한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즉 성경은 태아도 주님과 교통할 수 있고 또 성령 충만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태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없다면 어찌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할 수 있고, 또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겠는가?

2. 하나님께서는 모태에서 우리의 신체가 온전케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created: NIV)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시 139:13).”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시 139:15, 새번역).”

“네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사 44:24).”

하나님께서 생명을 잉태케 하신 후에, 모태에서 인간의 몸을 온전히 지어 가신다.

NIV 성경에서 시편 기자는 주님이 모태에서 자신을 'created(창조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다(시 139:13).

낙태는 모태에서 태아의 육체를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가락을 밀어 제치고, 강제로 태아를 끌어내어 죽이는 것이다.

산부인과에서 낙태 수술을 하면서 가위로 태아의 팔과 다리를 잘라내며 몸체를 강제로 어머니 자궁 밖으로 끄집어낸다면, 그것은 모태에서 태아의 육체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가락을 밀어제치고 강제로 태아의 신체를 잘라내어 죽이는 것이다.

낙태 수술할 때 어머니 자궁에서 가위를 피해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태아의 모습이 영상으로도 찍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살기 위해 도망다니며 몸부림치는 태아를 강제로 죽이는 것이다.

3.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잉태되기도 전에 우리를 아셨고 택하셨다고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렘 1:5).”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태아의 성장 과정 이미지. ©프로라이프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엢 1:4).”

예레미야는 출생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아셨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 성별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또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성도들을 택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의 일생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빚어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각각의 인생들에 대한 계획과 부르심을 갖고 계신다. 그런데 태아를 모태에서 강제로 꺼내어 죽게 한다면 태아 각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은 어떻게 될

것인가?

4. 한 산부인과 의사의 외침

교회가 태아들을 죽이는 낙태에 대해 침묵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도 영혼이 있는 태아 살인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관하는 것이며, 부작위죄(不作爲罪,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죄)에 해당된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잠 31:8).”

한 산부인과 의사의 외침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그동안) 낙태 수술을 해 주었는데,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강단에서 '낙태는 죄다', '낙태는 살인이다' 하는 설교를 듣지 못했습니다.”

5. 태아 생명 존중은 하나님 존중입니다

10대 청소년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여 낙태해야 할지 상담하게 될 때, 우리가 단순히 “낙태는 죄입니다! 낙태는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실제적으로 낙태를 막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덩어리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는 것이라(약 2:15-17).”

약 2:15-17).”

한국교회는 '낙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생명을 죽이는 죄입니다'라고 선포하고 올바르게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 이와 동시에 태아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린 미혼모들을 보호하며,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돌봐줘야 한다.

성도들은 미혼모들이 낳은 아이들을 입양하여, 그들이 훗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대신하여 잘 양육해 주어야 할 것이다.

교회들은 미혼모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복지시설들을 운영할 뿐 아니라, 출산 후에도 자녀를 기를 수 없는 여성들이나 가정들을 위해 교육 기관들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와 물질과 시간과 온 마음을 드려 태아들을 살리는 일을 해나가야 한다.

지금 법무부에서 낙태죄 완전 폐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임신 9개월의 출산 직전 아기까지 낙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낙태와의 전쟁'은 태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의 생명을 기꺼이 바칠 수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다.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곧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용희 교수  
에스더기도운동본부 대표



서울역 앞에서 태아생명 살리기 위드유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위드유 캠페인

## 2020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ATS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중준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기독교회(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서약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경호 박사 71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이사장: 조종관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 aeu@master@gmail.com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의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626)857-2200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 힐러리 “기독교 너무 비판적이라 젊은이들 교회 떠나”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 비판적이고 소외감을 주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힐러리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 트위터

클린턴 전 장관은 최근 자신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너와 나 모두 힐러리 클린턴과 함께’(You and Me Both with Hillary Clinton)에 출연한 윌리엄 J. 바버 2세(William J. Barber II) 목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바버 목사는 노스캐롤라이나주(州) 그린리프크리스천교회(Greenleaf Christian Church)를 맡고 있다.

클린턴 전 장관은 바버 목사에게 “오랜 경력의 목회자이자 활동가로서, 기독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의 제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이해시키기 위해 어떤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열려고 노력하는가?”라고 질문한 뒤, “예수님과 정의가 같은 것이라고 말하는 일은 내게 너무나 당연하다.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서,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단순한 문장이 얼마나 깊은 진리인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나?”

라고 물었다.

이에 바버 목사는 “대량 학살과 미국 흑인의 노예화, ‘여성의 배제와 억압’, ‘나쁜 방식으로 영향을 받고 감염되는 신학’ 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것이든 불의와 다투지 않는다면, ‘대문자 S와 함께 성령(Spirit)이 된다’는 당신의 주장은 의심스러운 것”이라고 답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한 정당이 기

##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는 신학적 진술

본적으로 기독교를 소유하려 애쓰는, 의도적이고 일치된 노력을 생각할 때, 이는 미국 흑인교회의 노력을 간과하는 것이다. 당신의 말처럼, 이는 많은 신학과 많은 역사를 간과하고 있다. 또 지금의 순간을 시간적으로 간과하고 있다. 난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는 말을 신학적 진술과도 같이 심오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바버 목사에게 “미국이 결국은 그렇게 오랫동안 왜곡하고 미뤄왔던 도덕적인 추정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그는 “미국에는 노예 소유자의 종교라는 신학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인종차별주의와 싸우는 것을 반대하는 ‘폐지론자들의 종교’도 존재한다”면서 “인종적 불평등과 불의에 대한 지속적인 항의는 내가 ‘세 번째 재건’으로 보는 것이 나타나기 위한 ‘해산의 고통’”이라고 답했다.

바버 목사는 “1868년과 1896년 도 사이 미국의 첫 번째 재건이 있

었다. 그 이후 1954년부터 1968년까지 두 번째 재건을 했다. 그리고 미국에 세 번째 재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어려움은 탄생의 고통”이라며 “이 순간이 단순히 흑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인종차별주의 뿐 아니라, 유색 인종에 대한, 제1국가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제도적 빈곤과 생태학적 파괴와 전쟁, 경제 및 종교적 민족주의의 잘못된 도덕적 서술에 관한 모든 표현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의 우리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거리에서 보는 애도(의 물결)에 정책 결정을 일치시키고, 싸움을 구경하듯이 보지 않는다면, 이는 재건의 요구보다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순간이다. 그러나 많은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는 정치인들의 교체도 요구한다. 또 공직에 출마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온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가 온건의 순간에

있지 않고 재건의 순간에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지금은 보통의 시간이 아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붙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것이 나의 심정”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마지막으로 종교 때문에 많은 이들이 소외되어 왔는데, 교회가 그 순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물었고, 바버 목사는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방식이 너무 비판적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최근 신간 ‘We Are Called to Be a Movement’을 펴낸 바버 목사는 “교회가 변혁적인 신앙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면서 “젊은이들은 변혁, 사랑, 정의, 평등 등, 신앙의 사람들이라는 본질에 대해 매우 개방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교회가 건물 벽 안쪽으로 격리되어 있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는 결코 교회가 의도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강혜진 기자

# 美 뉴욕주지사 “방역 수칙 동의하지 않는 교회·회당 폐쇄”

미국 뉴욕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앤드류 쿠오모(Andrew Cuomo) 뉴욕 주지사가 방역 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교회와 회당을 폐쇄하겠다고 위협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지난 5일(현지시간)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 플리커 계정

6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쿠오모 주지사는 레드존에 해당되는 가장 감염이 심한 지역에서는 모든 학교가 대면 수업을 중지하고 상가도 필수업종만 문을 열 수 있다고 밝혔다.

교회와 회당과 같은 종교 시설은 25명 이내만 허용되고 식당은 일부 옥외 식탁에만 4명 이내 씩 식사를 할 수 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독교인과 유대교 모임의 사진을 화면에 띄우고 “종교 기관이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사진을 보면 마스크도 쓰지 않고 거리두기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규칙 준수에 동의하지 않으면 폐쇄된다.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하시드파 유대교 단체는 공식 트위터에 통해 쿠오모 주지사가 거론한 사진에 대해 “그 사진은 최근 몇 주 전 사진이 아니다. 십년 이상 된 사진”이라고 밝히며 “14년 전

인 2006년 장례식 사진”이라고 지적했다.

성 아타나시우스(St. Athanasius) 교회 소속 조셉 에스포지토(Joseph Esposito)는 “쿠오모 주지사가 부당하게 예배당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면서 “어이가 없다. 절대 말이 되

지 않는다”고 더 타블릿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우리는 방역과 안전을 위해 우리의 방식을 버렸다. 교회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열심히 (방역에 협조했지만) 벌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교회에 대한 추가 요구 사항을 언급하며 “종교 기관을 계속 개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 하에 가능하다. 첫째, 유대 공동체인든, 흑인 교회이든, 로마 가톨릭 교회든지 간에 종교 공동체는 규칙에 동의해야 한

다. 규칙 시행에 있어 완전히 협력할 것을 동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칙 시행에 동의하지 않는 기관은 폐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또 종교 기관 개방을 위한 두번째 조건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과 수용 인원 제한을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월 27일 빌 드블라시오 뉴욕 시장은 처음으로 교회와 회당을 대상으로 시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영구 폐쇄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교회와 유대 회당 등 종교 단체들은 이같은 명령에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 국제 종교자유위원회(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의장이자 기독교 보수 단체 가족연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 회장인 토니 퍼킨스(Tony Perkins)는 드블라시오 뉴욕시장의 명령은 “위헌”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유형의 종교적 적대감은 공공 안전을 넘어선 동기를 드러낸다”라고 비판했다.

이미경 기자



## 마동환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Attorneys**

David Marh  
Simon Langer  
Frederick Alschuler  
Gordon Turner  
Nicholas Valmes  
Walter Roberts  
Douglas Villinger

**이민법**

낮선 땅에서 안정된 신분과 안정된 삶의 정착의 중요성은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그러한 중요성을 심분 새겨서 가족의 일과 같이 모든 신분변경 및 이민케이스를 꼼꼼함과, 정성과, 넓은 시야를 갖고 대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의뢰인들께 만족한 결과를 드린 것이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 (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 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분의 법적문제에 의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와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여는 분야 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 합니다. 지피지기가 이루어 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 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은 꼭 변호사와 하십시오!**  
모든 상담은 절대 비밀을 보장합니다.  
무료상담 / 이메일 예약 환영

**辯護**  
변호

의뢰인의 원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것을 파악하는 것이 변호의 핵심이라는 것을 늘 염두하고 있습니다. 참된 변호란 의뢰인의 처한 상황과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송은 때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이해상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절되어야 합니다.

**實力**  
실력

마변호사그룹의 오랜 경험이 물론 실력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핵심 이슈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되는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 지혜롭고 때론 창의력을 갖춘 것이 마변호사그룹의 진정한 실력이라 하겠 습니다. 이 실력은 의뢰인을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무기입니다.

**精誠**  
정성

가장 큰 정성은 의뢰인의 문제를 내 입처럼 생각하는 것일 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은 모든일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과 오랜기간 귀한 관계를 이어온 것도, 정성어린 마음의 결과라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責任**  
책임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물론 말한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의뢰인과의 대화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전화, 이메일, 미팅을 통해 어느때든지 마변호사그룹은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를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信賴**  
신뢰

변호사의 진정한 기쁨과 긍지는 의뢰인으로부터 얻는 신뢰일 것입니다. 한분 한분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기에 신뢰는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믿거름이요 최종 목표입니다. 진정한 신뢰 없이 진본이 없는 것 같고 있습니다.

tel. 213.487.91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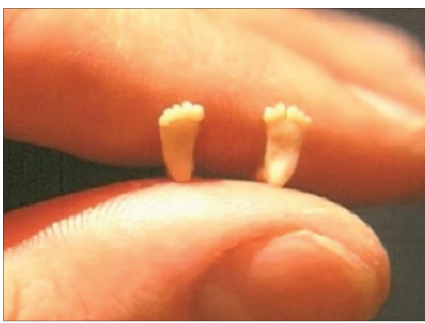
fax. 213.487.9484

email. marhlaw@yahoo.com

3325 Wilshire Blvd., Suite 1350, Los Angeles, CA 90010

# 美 기독교인 44% “낙태에 대한 성경 가르침 제대로 몰라”

애리조나 크리스천대학교(Arizona Christian University) 문화연구센터(Cultural Research Center, CRC)에 따르면, 미국 기독교인 10명 중 4명 이상이 '낙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모호하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름까지 완벽하게 형성된 10주 태아의 발

8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인 CRC의 '미국인 세계관 인벤토리 2020' (American Worldview Inventory 2020)에 실린 낙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CRC의 조지 바나(George Barna) 연구소장은 지난 1월 미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오차범위는 ±2%p였다고 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응답자의 44%가 '낙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모호하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34%는 '낙태가 산모를 경제적·정서적 불편함이나 힘들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바나 소장은 “낙태와 관련된 이 같은 설문 결과는 스스로 기독교인으로 여기는 미국인들이 ‘성경적 진리’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이탈했음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독교인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34%가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연합’으로 정의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40%는 ‘개인의 이익에 도움이 되거나 명예를 보호하는 경우, 거짓말을 도덕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바나 소장은 “낙태와 관련된 이 같은 설문 결과는 스스로 기독교인으로 여기는 미국인들이 ‘성경적 진리’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이탈했음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독교인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34%가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연합’으로 정의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40%는 ‘개인의 이익에 도움이 되거나 명예를 보호하는 경우, 거짓말을 도덕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했다.

바나 소장은 “미국 내 영적 지형의 재편이 지닌 역설은, 이것이 기독교적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이들이 추진하는 ‘후기 기독교 개혁’(post-Christian reformation)을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불행하게도, 이러한 개혁의 신학(theology of this reformation)은 성경적 진리보다 미국 문화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독교 변증 웹사이트 ‘갓 퀘스천’(Got Question)은 “성경 안에는 낙태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 풍부하고 명확히 알려주는 수많은 가르침이 있다”면서 “예레미야 1장 5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태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언

급한다. 시편 139장 13~16절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말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궁 속에서 우리의 창조와 형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셨음을 의미한다. 또 출애굽기 21장 22~25절 말씀은 자궁에서 아기를 죽게 한 이들에게도 같은 형벌 즉,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궁 속의 아기를 성인 못지 않은 인간으로 생각하고 계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낙태 찬성론자인 ‘프로초이스 액션 네트워크’(Pro-Choice Action Network)의 조이스 아서(Joyce Arthur)와 같은 인물은 “성경은 (인간의) 생명과 인격이 ‘숨’(breath)에서 시작됨을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 주장은 낙태에 대한 종교계의 반대에 대응하여 낙태 클리닉 웹사이트와 홍보물에도 등장한다.

아서는 1989년 출간한 책에서 “인간이 나 살아 있는 영혼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네페쉬’인데, 이 말은 ‘숨쉬기’를 뜻하기도 한다. 네페쉬는 인간의 생명을 구별하는 요소로, 성경에서 700번 이상 나온다”면서 “태아는 분명히 숨(breath)쉬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의하면 인간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강혜진 기자

## 매주 기도하는 미국 성인 1억 6천만 명



코로나환자 돌보기 전 옥상에 모여 기도하고 있는 의료진들. ©마이애미 잭슨 사우스 메디컬 센터

최근 미국 대통령 기도팀(Presidential Prayer Team)이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미국인의 약 절반이 매일 기도하고 있으며, 공화당을 지지하는 당원이 민주당원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9일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였으며 공화당원은 7%에 그쳤다.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에 위치한 이 기관은 ‘미국인의 기도 습관’을 주제로 브라운 리서치(Braun Research)와 연계하여 미국 성인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매주 기도하는 응답자 중 30%는 ‘정치와 정부에 관한 뉴스’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 반면, 가끔 혹은 전혀 기도하지 않는 응답자는 이보다 낮은 21%였다.

설문에 따르면 미국인 45%가 ‘매일 기도한다’고 응답했으며 65%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기도하며 매일 하진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 중 17%는 ‘불규칙적으로 기도한다’고 답했으며, 15%는 ‘기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도의 이유’를 묻는 질문(복수 응답 가능)에 전체 응답자의 64%는 ‘기도를 하나님과 소통하는 의미 있는 방법’이라 답했고 57%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심’이라고 믿었다. 또한 57%가 ‘기도는 예배의 방법 중 하나로 꼽았으며, 55%는 ‘기도는 힘든 상황을 통과할 때 도움이 된다’, 53%는 ‘어려운 상황에도 긍정적인 해결을 소망할 수 있다’고 답했다.

기도팀은 성명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이 통계는 매주 1억 6천만 명 이상의 성인들이 기도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념별로는 보수주의자의 71%가 ‘기도를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소통하는 방식’이라고 답한 반면, 진보주의자는 58%가 이에 동의했다. 또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이란 질문에 보수주의자는 63%, 진보주의자는 48%가 같은 응답을 보였다. ‘기도가 희망의 원천’이란 응답은 각각 보수주의자 58%, 진보주의자 48%였으며 ‘기도는 예배의 방법 중 하나’라는 대답은 보수주의자 64%, 진보주의자 53%로 비슷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응답자 중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성향일수록 기도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 기도한다’는 응답은 보수주의자는 53%인 반면 중도주의자는 42%, 진보주의자는 33%였으며, 당별로는 공화당원 55%, 민주당원 43%로 나타났다.

미국인의 대다수는 지인(75%), 나라(61%), 군대(53%)를 위해 ‘적어도 주 1회 이상 기도한다’고 답했으며, 공화당원의 83%는 ‘매주 국가를 위해 기도한다’고 자신했다.

반면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진보주의자가 30%로 가장 높았고 중도주의자 14%, 보수주의자 9% 순으로 집계됐다. 같은 질문에서 민주당원은 20%를 보

김유진 기자

# 교회혁신교회

##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림채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 245-6616

주일예배 오전 11: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토요아침예배 오전 9:00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대에 오라 9:30 새벽예배 오전 5:20(월, 수)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오전 6:20(토)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종교기도회(수) 오후 7:3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2인2세를 영육하며, 이만가정을 치료하여, 선교영광을 증진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din Blvd)  
T. (213) 386-223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412 (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1340 E 6th St, #419, LA, CA 90021  
T. (310) 905-2228 / newchurchtdt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예배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오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종교동부 오후 10:3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수요일 오후 2:00  
수요일 오후 7:00  
새벽예배(토) 오전 6: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눔과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 후회)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유초등부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9:00 성인 EMO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11:00 한이청년예배 오후 12:30  
친양예배 주일오후 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치유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종교동부 EM 오전 11:00

**차성구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십자가 복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주일 1부예배(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분당) 오전 11:00 종교동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리셋예배(델리예배) (소매별) 오전 11: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티노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종교동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지역 : 유아원 지역, 후드 지역, 장학 지역, 십자가 지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흠뻑 소.신 초 정신의 흠뻑, 바른교회관의 흠뻑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 예배 오전 10:30  
2부 예배 오후 1:30  
성경 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산타모니카 만리부 지역 유일할 한인교회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영혼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us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O(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월-토) 오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종교동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 LA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종교동부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음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운 백마 함께 달리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종교동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저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냄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종교동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용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안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출장예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 6: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랑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종교동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이훈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조준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수요기도회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월) 汉语圣经班: 周二晚上七点半

**치노밸리 아름다운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금요일(10월) 새벽예배 오후 8:00  
중보기도회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 중국, 기독교 서점 주인에 징역 7년 선고...1만3천여권 압수



2011년 9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중국 기독교 성경 전시회에서 그림성경이 전시됐던 모습. ©The Christian Post/Amanda Winkler

중국 기독교 온라인 서점 주인이 '불법 사업 활동'으로 간주되는 일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7년에 벌금 3만 달러를 선고 받았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2일 보도했다.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ICC)'은 2019년 9월 저장성 타이저우시에서 온라인 서점을 운영하던 쟈 유(Chen Yu)씨가 대만, 미국 등지에서 수입된 '미승인 종교 출판물'을 판매한 혐의로 구금됐다고 밝혔다.

'중국 기독교 정의 연대'의 프랜시스 류신부가 공개한 린하이시 인민 법원 문서에 따르면, 쟈 유는 지난 9 징역 7년과 벌금 20만 인민폐(미화2만9천450달러)를 선고받았다.

문서는 또 그가 운영하던 서점에 있는 12,864권의 기독교 서적들은 린하이시 공안국에 의해 파괴되고 그의 아이폰은 압수당할 것이라고 고지했다.

ICC에 따르면 중국 공안은 판매 기록을 입수해 서점 고객을 추적하기 위한 전국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들이 구입한 도서는 압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고흐 ICC 동남아시아 지역 사무국장은 이번 판결이 중국 공산당이 "종교적인 모든 것에 대해 점점 더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종교적 상징인 '덕담을 적은 빨간 종이(Chinese couplets)'부터 기독교 서적까지 종교적인 요소가 담긴 모든 것은 중국 공산당에 의해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흐 국장은 쟈 유와 같은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연약 교회의 왕이(Wang Yi)목사와 같은 '기독교인에 대한 불평등 선고'는 중국 정부의 기독교에 대한 극심한 탄압을 예고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공산당은 현재 중국 내 기독교의 영향력을 제한하고자 기독교 서적 판매업자와 고객들에 대한 단속을 갈수록 강화하고 있다.

작년에는 '휘트 서점' 주인인 장샤오마이(Zhang Xiaomai)는 '불법 사업 활동' 혐의로 구속됐다. 중국 정부가 발행한 문서에는 그녀가 해외에서 구입한 종교 서적물을 불법으로 판매했다고 보고했다.

이 서점에서 책을 구입한 혐의로 소환된 광둥성 신전시시의 한 교회 목사는 "기독교 서적을 사는 사람들은 실천하는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들이 정권의 안정에 얼마나 위협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이들을 조사한다"고 비터윈터(Bit-ter Winter)에 밝혔다.

산둥 출신의 한 가정교회 전도사도 비터윈터에 "중국 온라인쇼핑 사이트인 타오바오에서 종교 자료를 구입한 사실을 알고 경찰이 수사를 벌였다"고 진술했다.

2018년 4월 중국 정부는 온라인 소매점들의 성경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중국에서 성경은 기독교 교회를 감독하는 정부 승인 기관에 의해서만 배포될 수 있도록 법적인 제한을 받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올 상반기에만 전역의 국영 교회에서 900개 이상의 십자가를 철거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예수님의 사진을 마오쩌둥과 시진핑 주석의 사진으로 교체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만큼 종교적 자유가 폭압 아래에 놓인 곳은 없다"면서 중국 공산당이 "자유, 등불, 그 중에서도 종교적 자유의 등불을 무시무시한 규모로 꺼뜨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미경 기자

###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7:00 JCO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9:00 EM 10:15, 오후 12:45 (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Blended Service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일 내 길에 빛이이다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org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종교동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창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com

**방수민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종교동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하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윤대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 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일성경회 오후 7:45  
젊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www.lolmc.org

**오명찬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일성경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최혁 담임목사**

**벨리제움**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MP제움**  
335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주일 1부 예배 오전 10:00, 2부 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수요성경회 목회 7:45

588 Altos Ave., Monterey Park, CA 91753  
1954 Hinsdale St., Norridge, CA 91305  
1부 예배 오전 9:30, 2부 예배 오전 11:00  
1부 예배 오전 9:30, 2부 예배 오전 11:00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민종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 사우스베이, 토렌스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종교동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신태섭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종동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종교동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지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이석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나성금란교회**

기쁘고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종교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서보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강신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김경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할지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이동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찬양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EM예배 오전 11:00 오전 5:40(토)

**성화장로교회**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만나며, 함께 걷는 믿음-사랑-소망 공동체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 (310) 515-1191 www.sunghwachurch.org

**박성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일성경대강좌 금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17910 Prair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이상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svision.org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530-4040 / F.(310)530-8400 / cornerstonetm.com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 캐나다 '라이프 체인' 반낙태 캠페인... 200군데서 개최



지난해 10월에 열린 캐나다 반낙태 캠페인 및 철야기도 참가자들. ©Courtesy Campaign Life Coalition

낙태 방지 사회 운동 단체인 '라이프 체인(Life Chain)'이 11일 캐나다 전역의 200곳에서 '철야 기도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매년 이 행사는 친생명 단체인 '캠페인 생명 연합(Campaign Life Coalition)'이 주관하며, 참석자들은 낙태 종식을 위해 단체로 기도하고 팻말 시위를 가질 예정이다.

라이프체인 캐나다 지부 청소년 코디네이터인 조지 루에케(Josie Luetke)는 "낙태의 부당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말했다.

루에케는 CP와의 통화에서 "세상에 어떤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던 간에, 우리는 현재 북미 전역에서 수천 명의 무고한 태아가 낙태에 의해 살해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다"가 밝혔다.

그녀에 따르면 작년 행사에는 250여 개 도시가 참여했으며, 올해는 200여 도시 - 토론토, 오타와, 그 외 지역들 - 에서 조직되며, 참석자는 코로나 대응행으로 인해 작년의 3분의 2정도인 1만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최측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손 세정제, 마스크 사용 외에도 단체 사진 촬영도 지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루에케는 "코로나19 봉쇄 규정이 라이프 체인을 갖는 것을 금지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참석자들을 위한 광범위한 가이드 라인을 개발했다"면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항의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이프 체인' 철야 기도 행사는 1990년 캐나다에서 처음 조직되어, 미국에까지 확산되었으며 매년 10월에 열린다.

캐나다는 현재 '선택적 임신 후기 낙태'를 허락하는 몇 안 되는 국가들 중 하나이며,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연방 총리는 2017년 낙태 후원에 정부 기금 6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됐다.

올해 8월에는 캐나다 제1야당인 보수당의 에린 오톨(Erin O'Toole) 신임대표가 동성애자 권리와 낙태를 지지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유진 기자



# 한국 낙태율 이미 OECD 최고... 전면적 허용시, 태아 살해 급증할 것



낙태된 태아를 보고 울상 짓는 아이. ©김신의 기자

## 교회인론회 '태아의 생명은 보호해야 한다' 논평

법무부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 가운데, 한국교회 언론론회에서 '태아의 생명은 보호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6일 발표했다.

교회인론회는 "지난 9월 27일 여성계 원로 100인이라는 사람들이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국민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존엄성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이런 주장이 나온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라며 "참으로 개탄스러운 것은, 법조인들 몇 사람의 결정으로 인해 수많은 생명들이 스러져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낙태가 임신 후 12주 이내에 95% 이상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14주 이내를 언급하는 것은 사실상 모든 낙태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도 한국은 OECD 주요 국가들 가운데 1,000명당 낙태 건수가 20명으로 최고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전면적 낙태를 허용한다면, 태아 살해의 증가는 불문가지(不問可知)"라고 우려했다.

교회인론회는 "낙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태아의 생명 존중보다는 여성의 결

정권과 행복추구권을 말한다"며 "그렇다면 낙태를 마음대로 한 여성들은 과연 행복할까? 전문가들은 '태아는 죽고, 여성은 다친다'고 한다. 최후·최고 피해자는 오히려 여성"이라고 전했다.

또 "법은 우리 사회의 하부체계인데, 법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심지어 생명에 대한 결정권마저 갖는다면, 이는 하위 개념인 법이 상부 개념인 양심과 자유,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능가하여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말 것"이라며 "살인을 방조하고 오히려 그런 행위를 보호하는 법은 필연코 병든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낙태죄를 개정해야 한다면 태아의 생명을 존중해야 하고, 여성의 건강을 위한 것으로 제한해야 하고, 낙태를 상업적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낙태 수술을 거부하는 양심적이고 종교적인 의료인을 처벌하지 않는 등의 보호가 있어야 한다"며 "생명의 시작에 대해 인위적으로 기간을 정해서도 안 된다. 수정(受精)과 함께 이미 생명으로 인정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우리는 선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악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며 "태아를 무자비하고 무분별하게 죽이는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선한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이대용 기자

# 이재훈 목사 "낙태, 하나님 창조 질서 거스르는 살인"

온누리교회 담임 이재훈 목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이름으로, 또한 낙태를 허용하는 법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해치는 일들이 일어나는 나라가 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이목사는 11일 예배에 앞서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들은 사회를 바꾸는 중요한 것"이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기도하고 있다. 또 최근 입법된 낙태에 관한 법은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내용"이라고 했다.

그는 "모태에 있는 자녀는 생명이다. 14주까지 개인적인 의사로 낙태가 허용되고, 24주까지는 사회·경제적 이유로 허용된다는 것, 이것은 생명을 모태로부터 죽이는 살인 행위"라며 "많은 이유와 여러 어려운 형편이 있을 수 있지만 많은 기관, 단체들이 그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생명을 해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전 세계 코로나로 인한, 온갖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어머니 모태에서 사망되는 생명, 숫자가 더 많다"며 "이 나라 민족이 이러한 것을 허용하는 사회가 되지 않길 우린 기도해야 하고 또 목소리를 내야 하고 또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줄 믿는다"고 했다.

또 그는 "그래서 이 나라에 만연했던 거짓과 부정과 음란의 죄악을 회개하고, 헛된 우상과 탐심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교회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이 나라 민족이 올바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가는 나라 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이목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나라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인권과 자유의 이름으로 탐욕을 합리화하고 합법화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바르게 지켜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나라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평화와 진리로 다스려지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해달라"고 했다.

김신의 기자

이후 '감사는 믿음의 완성입니다 (누가복음 17:1~19)' 제목의 설교에서 그는 "우리는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 우리가 당연하다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감사의 제목이 있는지 다시 발견하게 되었다. 추수감사주일의 목적도 마찬가지다. 가장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감사의 제목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전하시고 섬리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복된 주일이 되어야 한다"며 "감사치 아니하는 것은 죄"라고 했다.

그는 "본문을 보면 열 명의 환자들이 고침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한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었다. 우리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성숙해야 하는지 보여준다"며 "한 명의 나병환자는 사람들과 다른 선택을 해 감사했고, 겸손하게 감사했고, 감사함으로 온전한 구원을 경험했다"고 했다.

이목사는 "우리 문제와 필요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믿음",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 "엎드려 감사하는 믿음"을 강조하며, "기도하는 믿음은 응답받는 믿음으로, 응답받는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감사하는 믿음의 완성이다. 기적만을 바라는 믿음은 기적이 끝나면 감사도 끝난다. 그러나 기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기적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목사는 "우리 문제와 필요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믿음",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 "엎드려 감사하는 믿음"을 강조하며, "기도하는 믿음은 응답받는 믿음으로, 응답받는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감사하는 믿음의 완성이다. 기적만을 바라는 믿음은 기적이 끝나면 감사도 끝난다. 그러나 기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기적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김신의 기자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청년예배 오후 2:00

세백예배(월-토) 오후 5:3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레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org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 O.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세백예배(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6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韓語)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세백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토요세백예배 오전 6:00  
대형청년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셀기주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저녁 8:00  
세백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복음 생으로 활로 살려 생애공평케 하니 그 생애 복을 받은 자는 복이 공평케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cf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세백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생령 성령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령회 오후 8:00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원생부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세백기도회 주일 오전 6:00

**최순길 담임목사**

**LA 임마누엘교회**

562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T. (714)743-0141

1부예배(EFM) 주일 9:00am  
2부예배(KM) 주일 11: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초등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월 두번째 금)  
세백예배 오후 7:00(수) 세백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9: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11:00

목요제네예배: 오후 7시  
세백기도회: 오전 6:00(화-금)  
셀모임: 매달 둘째 넷째 금요일  
주일 오전 11:0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92833  
T. (714) 525-0191 / www.ebsoca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백예배 오전 6:30(화-금)

**김일권 담임목사**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세백기도회 화-토 오전 5:30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어린이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백예배 오전 6:30(화-금)

**김일권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세백기도회 5:30(월-금)  
오전 6:00(토)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 영어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일벌이 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 예배 오전 11:00  
English Ministry 오전 11:30  
주일학교/중고부 오전 11:00

청년부 오전 11:00  
Hispanic Service 오전 9:30  
수요 예배 오후 8:0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풍성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공동체

15151 Cordova Rd, La Mirada, CA 90638  
T. (714)749-7770 www.saemmo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한어부 오전 11:30  
KM대학원생부 오후 2:00

**박신용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  
FAM예배 오전 11:30(청년 영어)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세백 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청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엘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매월 마지막 금요일  
청년부예배 오후 2:0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2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세백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영어)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토요세백기도회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좋은마음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T. (714)646-9259

주일 예배 오후 1:30  
세백기도회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20학년도 가을학기

##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수있습니다.

### 학생수시모집

####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 2020 가을학기 강의시간표

Day	Time	Class	Professor
Mon	7:00 PM - 9:00 PM	조직신학(서론, 신론) Systematic Theology I	Elijah Kim
Tue	7:00 PM - 9:00 PM	교리, 목회서신 Catechesis, Pastoral letter	James Lee
Wed	8:30 PM - 10:30 PM	사무엘 상, 하 Samuel 1st and 2nd	Timothy In Song
Thu	7:00 PM - 9:00 PM	현대신학 3 Modern Theology 3	David Lee
Fri	8:30 PM - 10:30 PM	예배학 Christian Worship	Jong Yong Kim
Sat	7:00 PM - 9:00 PM	리포트, 논문 Rearch & Writing	Young Joon Ko

\*청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과목당 \$100씩으로 청강하실수있습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 사랑이란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입니다. 딸을 시집보내면서 많은 분의 공통적인 질문은 제가 울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백여 번 결혼 예식을 주례하면서 신부 부모들이 우는 것을 종종 보기도 하고, 때로는 고약스럽게 우는 신부 아버지를 놀리기도 했던 저였습니다. 막상 제가 딸을 보내면서는 어느 순간, 밀물처럼 밀려오는 주체 못 할 감정을 마주하며 '이런 것이었나?'라는 상상도 하지 못하던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지면을 통해 딸을 시집보낸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께 딸을 시집보낼 때의 감정이 이런 건 줄 모르고 지나온 것을 사과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딸을 보내면서 지나간 날들의 사진을 정리하며 앨범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사진마다 새록새록 추억이 떠올라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에게 큰누나라는 책임감을 강요했던 것이 제일 맘에 걸립니다. 막내딸은 자기의 '반쪽 엄마'가 시집을 간다며 눈물을 글썽거리릴 정도로 언니를 의지했나 봅니다.

자기가 4살 때 담임 목회를 시작한 아빠를 돕겠다고, 교회에 처음 오는 아이들이 있으면 무조건 다가가 결국은 아이들이 '이 교회 너무 좋아요'라는 말을 하게 만들어서 부모님들이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에 다니기로 했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로 속상해하고 끔강거리며 기도하던 아빠 옆에 와서, 자기는 무조건 아빠 편이라고 말해 준 것도 내 딸이었습니다.

딸을 시집보내는 날 아침, 제 눈가에 주르륵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딸에게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예식이 끝난 후, 식장을 마지막까지 정리하는 신랑 신부를 보며 그저 돕직하고 신뢰가 가는 사위가 고마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며 저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눈물의 열매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요즘 먹방 아니면 트로트만 본다고 할 정도로 트로트가 유행입니다. 유행가를 '세속적'이라 생각하며 별로 즐겨 듣지는 않았지만 "사랑이 무어나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라는 가사가 저의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을 보니 정말로 많이 회자되던 노래였음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구글 검색을 해보니 국민가수 나훈아 씨의 노래였네요. 가요계의 황제라 불리는 나훈아 씨는 최근, 비록 비대면이기는 했지만, 주석 공연을 통해 시청률 29%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올렸다고 합니다. 아무튼 나훈아 씨의 대표적인 이 노래는 가사가 간단하면서도 사랑에 대한 핵심을 잘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그냥 가슴 설레는 남녀 간의 예로 스라면 사랑은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들뜬 마음이라고 정의하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참고, 기다려주고, 애절하며 때로는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눈물'에 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안성복 목사  
다우니제일교회

그리고 연주가 끝난 후 바이올리니스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연주는 제 생애 가장 위대한 순간이었소!”

그 사람이 바로 '웰레스 하틀리'입니다. 웰레스 하틀리는 영국 출신으로 유럽선 악단에만 80회 이상 순향을 한 베테랑 악단 단장이었습니다.

당시 타이타닉호에 탑승했던 생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웰레스 하틀리와 그의 악단은 타이타닉호의 선체가 침몰하면서 생긴 파도의 여파로 악단 단원들 전체가 물속으로 휩쓸려 들어가기 직전까지, 자리를 지키며 찬송을 연주했는데, 그들은 그 때 들었던 찬송가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었던 것이 생생하게 기억난다고 하였습니다.

타이타닉 침몰 2주 후 웰레스 하틀리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시신은 그의 고향 가족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타이타닉호의 생존자들과 그를 기억하는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감사하며 기념비를 세웠고 기념비에는 "타이타닉호의 악단 단장이었던 그는 1912년 4월 15일 타이타닉과 함께 잠들다 그의 영웅적이었던 행동을 우리 후세에 전하고자 이 기념비를 세운다"고 썼으며 그 밑에는 그가 마지막으로 연주한 곡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 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 원합니다.

아침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 단을 쌓은 것

본 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 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 원합니다.

이 찬양은 그가 매일 부른 찬양이고 그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의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소원이 담긴 찬양이 있는지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있는지요?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 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 원합니다!"

1997년에 상영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12년에 발생하였던 당시 세계 최고의 유람선인 타이타닉호의 침몰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불후의 명작이라 할 수 있는 '벤히'와 마찬가지로 아카데미 14개 부문 가운데 11개 부문을 수상하였고, 당시 세계시장에서 최고 흥행 신기록을 세운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관람한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된 아주 특별한 명장면들이 있습니다.

타이타닉호 선상에서 여주인공이 팔을 벌리고 남자 주인공이 허리를 감싸는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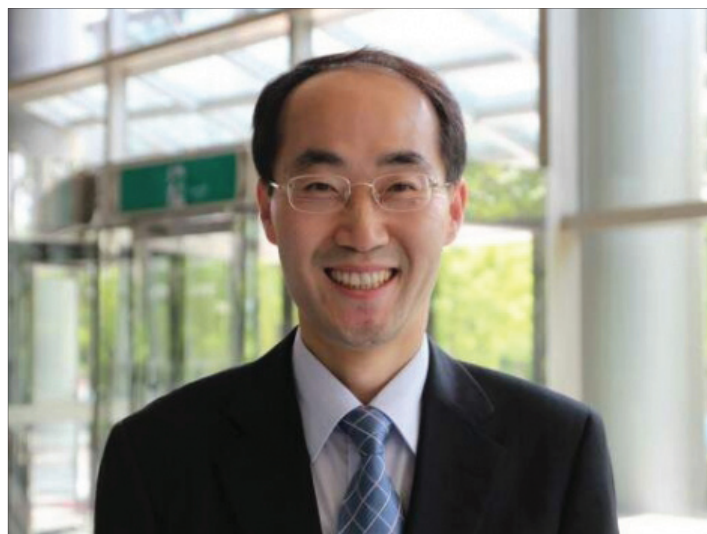
남자 주인공이 차가운 바다에서 온 몸이 얼어가는 상황에서 여 주인공에게 끝까지 살아남을 것을 부탁하고 바다 깊이 빠져가는 장면,

그러나 제 기억에 가장 남는 장면은, 침몰해 가는 배에서 들려지는 찬양이었습니다.

배는 침몰해 가고, 구조선은 부족하여 모든 사람들이 아수라장이 된 상태에서 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를 시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의 연주가 시작되자 다른 뮤지션들이 하나 둘, 돌아와 함께 하기 시작합니다.

## 구원 (Salvation)과 선행 (Good Works)의 관계

### 선행은 구원의 목적, 결과, 열매이자 증거



덴버신학대학원 정성욱 교수

사도시대 이후 교회사 2천년 동안 구원과 선행의 관계에 대한 논쟁은 지속되어 왔다. 사실이 논쟁은 끝났다고 보다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물론이나 여호와의 증인같은 역사적으로 오랜 이단들은 물론이고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신천지나 하나님의교회 같은 이단들은 여전히 인간이 선행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런 율법주의적, 공로주의적 가르침은 정통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가르쳐지고 있고, 안타깝게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 오늘은 이 짧은 글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은 모태로부터 죄가운데 잉태되어 죄를 타 고난 죄인이라는 사실이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인간 본성의

전적 타락" (the total depravity of human nature)이라고 부른다. 죄는 인간 본성의 모든 영역을 오염시켰다. 영혼과 육체, 지성과 감성과 의지, 그리고 관계성 등 인간 본성의 모든 영역은 죄로 물들게 되었다. 인간 본성의 전적타락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교리가 바로 인간 영혼의 죽음이야. 에베소서 2장 1절은 죄와 허물로 우리의 영혼이 죽어있다고 말씀한다. 모태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그 영혼이 죽은 채로 태어난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로 태어난다. 아니 성경은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로 태어난다고 말씀한다. 그 결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 아래 있다.

**둘째,** 전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결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선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적인

차원, 수평적인 차원에서 소위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선행 조차 수직적인 차원 즉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 (사 64:6)과 같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죄인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행 즉 절대적으로 완전 무결한 선행을 결코 행할 수 없다. 인간이 그 행위와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용납을 받고 의롭다 함을 얻으려면 절대 완전한 선행, 완벽한 선행을 해야 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행은 위로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완전하게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도 단 1초의 예외도 없이 매순간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나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로마서 3장 12절은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선포한다.

**셋째,** 그러므로 어떤 인간도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 즉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자는 없다. 따라서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선행이라는 공로와 자질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신 새로운 길 즉 오직 믿음 (sola fide)의 길이다.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며,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주님은 삼일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과 구주로 믿고 신뢰할 때에 우리는 영원한 죄사함을 얻으며, 우리의 영혼은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죄인의 구원은 결코 행위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이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며 성령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기 시작하신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킴으로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다. 이것이 영단변에 일어나는 칭의의 사건이다. 동시에 그 칭의의 사건이 일어나는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신다. 확정적 성화 (definitive sanctification)이다. 영단변의 성화이다. 의롭지 못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의롭고 거룩하다고 여김을 받게 된다. 결국 연합과 칭의와 확정적 성화의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

**다섯째,** 하나님 앞에서 거듭남,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령내주, 칭의, 양자됨, 확정적 성화를 경험

한 성도는 구원의 결과와 열매로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간다 (딤후 2:14).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은 목적이 바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선행은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도리어 선행은 구원의 목적이며, 결과이며, 열매이며, 증거이다. 그리고 우리가 선행을 행하도록 이끄시고 힘을 주시는 분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이시다. 바로 이런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진리에 우리의 믿음을 세울 때에만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자라나고 성숙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정성욱 박사

美 덴버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

저서 <티타임에 나누는 기독교 변증>, <10시간 만에 끝내는 스피드 조직신학>, <삶 속에 적용하는 LIFE 삼위일체 신학(이상 흥성사)>, <한눈에 보는 종교개혁 키워드>, <한눈에 보는 종교개혁 키워드>, <한눈에 보는 십자가 신학과 영성>, <정성욱 교수와 존 칼빈의 대화(이상 부흥과개혁사)>, <한국교회 이렇게 변해야 산다(큐리오스북스)>, <밝고 행복한 종말론(눈출판그룹)> 등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전도용 물티슈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문의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치과의사 이우희  
**이동희 원장**

리프팅/ 지방분해  
**최신장비 도입**

★ 리프팅 라인 ★ 부분 지방분해 S라인

4회 \$999 8회 \$999

탈모 치질 갑상선 당뇨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7~25lbs

손가락 발가락 마디관절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매끼는 속변제거약 먹으면서 체중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50** 한달분

“만성두통, 양쪽 어깨 통증, 뒷목 땀기고 귀울림(이명),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메스꺼리고, 꿈이 많고 깊은 잠을 못 자고, 한쪽 얼굴이 감각이 없거나 눈과 입 주위에 경련, 손과 팔이 저릿저릿하고 시큰거리는 마비증, 턱관절 장애 T.M.J.”

**교통사고 전문병원**

- 초강력 정력제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알러지, 콧물, 코막힘, 눈가려움증, 천식
- 서해부 통증(사타구니)
- 치아 비백 파우더(3달분 \$60)
- 미용침, 아토피, 각종 피부병
- 수족이 얼음처럼 냉한 분
- 발뒤꿈치 통증, 다리 쥐어움
- 염구리 통증(염통)
- 10일 이상 자궁출혈
- 요실금, 전립선 비대증
- 자궁이 내려앉은 증상

- 치질(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
- 자궁 물혹이나 통증(월경통, 하혈)
- 오심, 구역, 좌골 신경통, 요통, 류마티스 관절염
- 안면 신경마비, 중풍, 심근경색, 지독한 어지럼증
- 각종 위장병, 불면증, 햇플러쉬, 불안초조, 식은땀
- 갑상선, 당뇨병, 여드름
- 다리가 저리고 뻣기고, 무릎통증
- 골관절염, 테니스 엘보우
- 발간 코, 붉은 얼굴, 머리 속 두드러기
- 자궁 입구 근처에 물혹, 근종 수술 안해도
- 몸 전체 중에 밖으로 나온 혹이나 지방종
- 구연산 캡슐 취급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한의원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영업시간  
 월~금, 10시 ~ 5시  
 토 10시 ~ 2시

**Tel. 213 380 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드모어)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 좋은 소식의 역군(役軍)

로마서 10:9-15



서울성인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9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10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1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2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13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 1. 역군의 의미

좋은 소식(Good News, Gospel)은 전하는 자에게나 접하는 자에게 모두 유익한 것입니다. '역군'이라는 말은 일정한 부분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좋은 소식의 역군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자격은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어져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고 근본적으로 회개하고 죄를 사함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과정도 세상 지혜나 사람에 의한 교육방법이나 지식 전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을 통하여 성령의 지혜로 역사하시어서 깨달음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새사람이 되게 하시는데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예수님은 말씀 하셨습니다.

## 2. 진리와 성령으로 무장한 역군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내 죄 때문에 벌을 받아 죽으셨다가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신앙의 궁극적 뜻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구원파라는 이단은 순전히 타락한 이성애 호소해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이 말씀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신 것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는 한 마디만 하면 설령 그 말이 믿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이 입술로만 내뱉는 말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보장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의 신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체험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감동으로 회개하게 역사하셔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이성이 아닌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는 회개와 신앙고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고백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비로소 보혜사라는 성령을 파송 받을 수 있고 성도라는 호칭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인격적으로 의탁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했습니다. "주의 이름"은 예수(Jesus)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예수님에게 자기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용서받을 대책을 세워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거나,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내 죄를 대신 벌 받아 자기 백성 삼아주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할 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행 19:12)했습니다. 이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꾼 아들도 예수 이름만으로 악귀가 물러남을 알고,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을 빌자하여 명하노니 귀신이 나가라고 말하며 자기들도 악귀를 물리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귀신들린 자는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게니와 너희는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리고는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자격이 있는데 진리와 성령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3. 전도와 선교의 역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역군으로 세워져 파송을 하십니다. 그 소식을 듣는 사람이 믿음을 화합하면 복음화 되어지는 소망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

을 것인데, 과연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었던 사람, 믿어지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으로 회개하고 신앙고백을 한 사람은 구원을 보장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롬 10:14-15)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을 보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역군으로 파송되기까지는 위로는 예수님이 그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질심 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눅 10:17)고 말하며 그 능력이 나타남에 들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 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눅 10:18-20) 하셨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파송받은 사역자에게는 하나님의 가장 절대적이고 안전한 보호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귀신들이 항복했다는 기쁨에 들떠 있기 보다는 성령을 받았던 그 시간에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등록되어졌다는 사실을 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

었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하늘 시민권자가 되어졌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은 감람산 꼭대기에서 승천하시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하셨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역군이 되는 자격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을 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내게 계시면 나는 구원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17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 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했습니다. 본문에서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롬 10:15)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평가하시는 기준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역군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여러 가지 봉사과 헌신도 중요하지만 선교와 전도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은 아름답다는 평가를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신앙인의 자세를 갖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 성인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기본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신문 설교			
기독교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 통증탈출 양자칩

## 양자파동 에너지 칩

- 양자에너지(16번 공정을 거친 토션이라는 제5의 힘, 토션필드 토션장, 회전 전자파, 스핀파)가 30cm이상 방출
- 생체에너지 활성화, 최상의 컨디션 유지.
- 적혈구를 깨끗하게 하여 활동성을 강하게 하고 신속하게 젖산 배출.
- 12경락 365경혈 신속하게 풀어줌.
- 침시술 이상의 효과

▶ **신체 어느 곳이든 통증에 사용합니다.**  
천연 자연물질과 양자에너지를 융합시켜 자연 에너지를 방출하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팔, 다리, 허리, 어깨, 목 등 통증이 있는 곳에 붙이는 반영구적 칩입니다.

▶ **면역력 강화**  
자연 에너지를 인체에서 공명, 흡수함으로써 활발한 기혈순환으로 신진대사가 원활하므로 체온이 약 0.5~1℃ 상승되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Z-UP전동거꾸리 LOLC Inc.** For the Spirit & Body | Tel. (213)703-0240 | 147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웨스턴길, 1가와 2가 사이)

# 양자 깔창

## 양자 파동 에너지 쿠션 죽초액 발매트

- ▶ **추천인**  
당뇨분들의 발보호, 평발인 분, 뒤꿈치 갈라진 분들, 족막염성 통증, 발에 쥐가 자주 오는 분들, 발목, 발바닥, 발등 백색 건선 피부, 족부 혈행 원활, 직립형 활동 직업, 발 관련 질환자, 평안하고 아늑한 보행, 피로를 현격하게 감소
- ▶ **원리**  
걸을 때 3배의 하중에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데 제품 착용시 무거운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 허리, 무릎 부담을 현저히 줄여줍니다.
- ▶ **제품의 특징과 효능 및 효과**
  - 1) 죽초액 : 체중 분산, 구름을 걷는 느낌, 마사지 효과
  - 2) 은 : 향균, 향취 효과
  - 3) 원적외선 방출 분말 : 신체의 모든 부분을 원활하게 함
  - 4) EM 유용 미생물 : 굳은 각질을 제거해서 발을 부드럽게 함.
  - 5) 양자 에너지 처리 : 온 몸에 활력이 넘친다.
  - 6) 제품의 특징 : 신체의 여러 흐름을 빠르고 원활하게 함.

※사용시간만큼 쿠션감은 약해질 수 있으나 미생물 번식, 분해, 원적외선 방출, 양자파동 에너지는 반영구적으로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2020년 센서스 인구 조사원입니다.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에 안전하고, 간단하게 응답하도록 돕는 것이 저의 임무입니다.**

저는 올해 중요한 일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지역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한 후,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응답을 돕기 위해 각 가정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10년마다,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집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센서스 인구조사 결과를 통해 각 지역사회에 요구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응답은 중요합니다. 인터넷, 전화, 우편 또는 센서스 인구 조사원을 통해 응답하세요.

**2020CENSUS.GOV/ko**  
또는 전화 844-392-2020으로  
센서스 인구조사에 응답하세요.

이 광고는 미국 인구조사국 자금으로 제공됩니다

우리가  
만드는 미래  
지금 시작하십시오 >

United States®  
**Census**  
2020

아트설교연구원 인문학 서평 세상에서 제일 변화가 느린 곳?

# 시대 변화 맞는, 나만의 콘텐츠 만드는 법



나만의 콘텐츠 만드는 법 황효진 유유 | 176쪽

어떤 방식으로든 내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가요?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서 하나만 고르기 어려운가요? 뭔가를 만들고 싶기는 한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나요?

『나만의 콘텐츠 만드는 법』은 '콘텐츠'와 '기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기획의 과정과 콘텐츠 만드는 법을 친절하게 안내하고, 저자가 겪은 시행착오까지 솔직하게 담아낸 응골찬 책이다.

코로나19 이후 언택트(un-contact)시대를 맞이했다. 언택트 시대에 미디어의 중요성은 더 부각되고 있다. 미디어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미디어를 만드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콘텐츠(contents)다.

콘텐츠 사업은 인류의 마지막 산업이라고 부를 정도로 중요한 것이 되었다. 문제는 콘텐츠의 중요성은 알겠는데, '나만의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 내는가'이다. 황효진 작가는 이 문제를 나름 고민하면서 《나만의 콘텐츠 만드는 법》을 세상에 내놓았다.

저자는 책부터 팟캐스트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꾸준히 만들고 때때로 실패하며 배우는 기획자이다. 엔터테인먼트 중심의 온라인 잡지 《텐아시아》와 《아이즈》에서 기자로 일했다. 지금은 일하는 밀레니얼 여성을 위한 커뮤니티 '빌라 선샤인'의 콘텐츠 디렉터이자, 프로젝트팀 '헤이 메이트'의 팀원으로 일하고 있다.

저자는 콘텐츠를 이렇게 정의한다. "가공되지 않은 상태의 내용물이 아니라, 누군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정제된 형태로 만들어진 것".

이 책은 어떤 방식으로든 내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사람, 무언가를 기획하는 데 제대로 주도권을 발휘하고 싶은 사람,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 하나만 고르기 어려운 사람, 뭔가를 만들고 싶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아직 감이 잡히지 않은 사람, 콘텐츠를 만드는데 필요한 과정만이나 태도에 관해서도 고민해 보고 싶은 사람 등에게 알맞은 책이 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어떤 콘텐츠? 아닌, 목적부터 찾아라 나만의 콘텐츠를 찾았다면, 기획하라 콘텐츠 이용자, 구체적으로 상상하라

이제 저자가 말하는 "나만의 콘텐츠 만드는 법"을 간단하게 살펴보자.

저자는 "어떤 콘텐츠를 만드느냐"가 먼저가 아니라, '왜'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한다고 말한다. "왜 이 콘텐츠를 만들까요? 다시 말해, 이 콘텐츠를 만드는 목적은 무엇인가?"

모든 콘텐츠 기획은 여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왜'를 찾지 못한 채 '그냥 만드니까 만드는 거지' 하고 시작했다는, 엉뚱한 길로 빠져서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만 싹트 하다가 끝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라는 튼튼한 줄기가 있으면, 필요한 내용물을 거기에 맞

춰 기획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목적을 정하는 일은 콘텐츠 기획의 방향을 잡는 일과도 같은 셈입니다."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정해졌다면, 자신의 안에 있는 콘텐츠의 씨앗을 찾으라고 말한다.

"대체로 우리의 머릿속에는 너무나 엄격한 관리자가 한 명씩 살고 있어서,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가도 '아니야, 이걸 아닌 것 같아' 하고 너무 쉽게 폐기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콘텐츠가 될 만한 씨앗을 단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모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길러 내는 작업은 나중에 해도 되니, 우선은 전부 써 보세요."

콘텐츠에 사용할 수 있는 씨앗은 단번에 찾아지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씨앗들을 꺼내놓다 보면, 그중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좋은 씨앗을 찾을 수 있다.

나만의 콘텐츠를 찾았다면, 기획하라고 말한다.

기획을 한다는 것은 경로를 먼저 설정한다는 의미다. 잘 가고 있는 지 중간 중간 점검할 수 있는 '기밀 구석' 같은 것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

저자는 콘텐츠 기획을 이렇게 정의한다. "콘텐츠 기획이란 무언가를 만들고 싶지만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현재의 나와, 내가 만들고 싶은 이상적인 콘텐츠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잘 하는지 파악하고, 완성하고자 하는 콘텐츠의 꼴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자는 콘텐츠에는 콘셉트와 캐릭터가 필요하다면서, 그것의 차이를 이렇게 말한다. "콘셉트란 콘텐츠의 전체 성격을 말합니다. 캐릭터는 그 콘셉트를 어떤 얼굴이나 태도 또는 어떤 관점으로 다룰지에 관한 것입니다."

대개 콘셉트와 캐릭터를 설정하는 일이 선행되기는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으니 뭐가 먼저라고 딱 잘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콘셉트와 캐릭터와 세부 내용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좋은 기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캐릭터와 콘셉트를 설정했다면, 내 콘텐츠를 읽거나 보거나 들을 사람의 얼굴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라고 말한다.

일본의 출판 편집자 미노아 고스케는 《미치지 않고서야》에서 이러

게 말한다. "대중이 열광하는 콘텐츠란, 골똥히 생각해 보면 특정한 어느 한 명에게 강력히 가닿는 콘텐츠다. 극단적일 정도로 어느 한 개인을 위해 만드는 것이 결과적으로 대중에게 퍼져 나간다."

물론 이 말이 정말로 한 명만 만족하는 콘텐츠를 만들면 된다는 뜻은 아니다. 그만큼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콘텐츠를 만드는 개인이 소비자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하고 상상할 필요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상상하면 할수록, 앞으로 콘텐츠를 기획하기가 훨씬 더 편할 겁니다."

그리고 해 보면 깨닫게 됩니다. 내 콘텐츠를 주로 접할 사람의 얼굴과 삶을 상상해 보는 일이 콘텐츠를 기획하고 만드는 데 가장 큰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저자는 콘텐츠를 만들고 기획하는데 참고자료를 많이 찾으라고 말한다. "기획은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것, 파격적인 것을 발명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보다는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이미 존재하는 것 중) 적절한 방식과 형식을 찾아 딱 맞는 퍼즐을 만드는 일에 가까울 거예요."

저자는 이 책에서 참고할 자료를 부록에 첨부해 놓았고, 실제로 자신의 콘텐츠를 가지고 책, 잡지, 팟캐스트, 뉴스레터 만드는 법 등을 알려주고 있다.

코로나 이후, 콘텐츠 더 중요해져 우리 교회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경험 과신 말고 시대 변화 맞춰야

코로나19 이후 콘텐츠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는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면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재정도 교인 수도 점점 줄고 있다. 교회에 대한 세상의 인식마저 코로나 재확산

이후 더 안 좋아졌다. 한국교회는 이런 어려움을 헤쳐 나갈 대안이 없다는 말까지도 한다.

이제는 교회도 생존을 위해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교회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 길만이 살 길이다. 교회는 과거의 경험을 이제 내려놓아야 한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을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

'휴브리스(hubris)'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아널드 토인비가 한 말로, 지나친 자기 과신을 나타내는 말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내가 직접 몸으로 부딪혀 보고 얻은 것이니 당연하다.

문제는 그 경험이 자기 과신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내 경험이 모든 경우에 다 맞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믿는다. 자기 과신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게 만든다.

"영웅은 결국 자신을 영웅으로 만들어준 경험에 발목이 잡힌다"는 말도 이런 의미에서 나온 말이다. 영웅은 얼마나 대단한가? 그런 영웅을 만든 경험이나 자신만만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 그 경험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 지금은 과거의 경험보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콘텐츠가 필요하다. 경험만으로 자기 과신에 빠지면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다. 한국교회도 이제 자기 과신을 내려놓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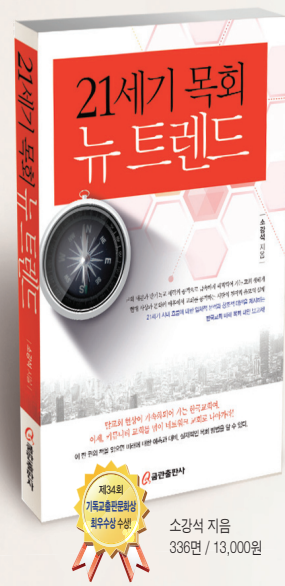
세상에서 제일 변화가 느린 곳이 교회라고 말한다. 교회의 본질은 바꾸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콘텐츠는 바꾸어야 한다. 그 길만이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다."

이재영 목사 대구 아름다운교회 담임 출처:아트설교연구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통합)

## 부총회장 당선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 크게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 21세기 목회 뉴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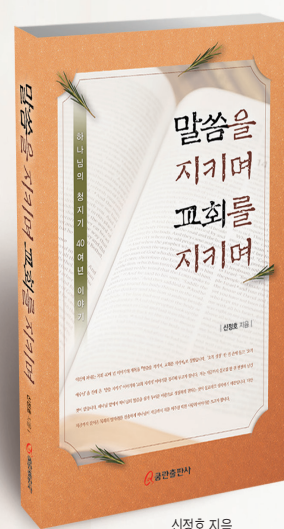
교회 내분과 반기독교 세력의 공격으로 급속하게 파괴되어가는 교회 생태계 현대 사상과 문화의 배후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과 음모의 실체 21세기 시대 흐름에 대한 입체적 분석과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국교회 미래 목회 대안 보고서!

탈교회 현상이 가속화 되어가는 한국교회여, 이제, 커뮤니티 교회를 넘어 네트워크 교회로 나아가라! 이 한 권의 책을 읽으면 미래에 대한 명확한 대안, 실행적인 목회 방법을 알 수 있다.

소간석 목사



소간석 저음 336면 / 13,000원



###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 하나님의 청지기 40여 년 이야기 -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킨다'는 청지기 사상에는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킴으로써 오는 교난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부지런히 전도할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온 전주동신교회와 신철호 목사의 이야기다. 교회 개혁을 꿈꾸는 신학생, 목회자, 성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신정호 목사



신정호 저음 380면 / 15,000원

호남신학교, 김로회신학대학, 연세대학교연세신학대학원, 서남대학교, 동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미국 유신대학교에서 목회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전주노회장, 총회 공-농어촌 부장, 회의록 사기, 총회 정책개발연구원, 세계선교부장, 총회사기, 호남신학교 총동문회장, 한국기독교총회 본부장 등으로 섬겼다. 현재 전북 CBS 운영이사, 호남신학교 객원교수, 한신대학교 이사, 한국노회교회 회장, 전주동신교회 담임목사로 봉직하고 있다.



- 1) Covid-19로 온라인 수업이 많아지는데 애가 집중도 못하는거 같고, 관리가 잘 될까요?
- 2) 아이가 고등학생이라 중요한 시기인데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예요..

100% UC대학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3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 NCA 사립학교



“이래서~ 믿을 수 있구나!”



-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를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 (타사립학교 대비)
-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 (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 12학년 평균 SAT 1,390점의 우수한 성적
- 11:1 학생 교사 비율로 효율적 온라인 교육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IB 프로그램이란?  
전 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입니다.

8월 10일  
개 학

3119 W. 6th Street,  
LA, CA 90020

213.487.5437

